

특 집

87. 1 입시경쟁교육 어디로 가고있나?



입시교육 이대로 좋은가? <좌담>

..... 박영숙, 오장은, 이문영, 이현숙

입시교육제도 유감 오충일

대입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김종선

입시교육 아대로 좋은가 ?



때 : 1986년 12월 17일 (수)

곳 : 새가정사 회의실

참석자 : 박영숙 (학부형)

오장은 (새문안교회 장로 · 교사)

이문영 (고려대 교수 · 행정학)

사회자 : 이현숙 (본지 편집위원 · 호서대 강사)

사회자 : 11월부터 1월, 3개월간은 입시열병을 앓는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잔인한 달입니다. 유난히도 지난 해는 입시경쟁교육의 병폐로 자살한 학생수가 많았고, 또 문교부는 갑작스레 바로 다음해부터 시행될

입시제도의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이, 문교행정이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것인지 심히 염려됩니다. 이에 교육현장의 문제를 먼저 분야별로 다루고, 그 문제를 낳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는 최소한의 대안이라도 찾아보고자
이 좌담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장은 선생님께서 일선교사
로서 교육현장에서 느끼시는 문제들
을 말씀해 주시죠.

오장은 : 저는 먼저 학부모들이 자
녀교육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얘기하
고 싶어요. 학교에만 보내면 그만이
고, 오래 붙잡아 두면 성의 있는 학
교요, 입시 지도를 잘하는 것으로 여
기는 것이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풍토
입니다. 사실 어느 교사가 밤 10 시,
11 시까지 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같
이 고생하면서 있고 싶어하겠습니까?
학부모들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만
큼 압력이 되거든요.

제 큰 놈이 몇년 전에 ‘고3 병’
에 걸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학교
에서는 그 아이를 학교 도서관에다 학
교 방침대로 둘 거냐 아니면 학부모
의 뜻에 따라 아이를 입시 지도하게
할 거냐를 신중하게 고려해 주었고
학부모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 그 학교에서 보장해 주
는 제도 속에서 공부하겠느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할
거냐’를 물었더니, 학교에 매이지 않
고 제 방, 제 책상에서 공부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한동안 성적이 떨어
지기도 했으나 방학동안에는 혼자 열
심히 할 수 있게 되었고, 성적이 놀랄
만치 올랐습니다. 이 아이의 경험으
로 미루어 볼 때 학교 영향력 때문에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자기 결단 여하에 달
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숙 :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
자는 시간을 막고 싶어서 학교에 오
래 맡기기를 바라겠습니까? 문제는
입시경쟁 과열 때문인데 어쨌든 공부
를 많이 시켜야 관문을 통과할 것이
고, 이런 교육 풍토 속에서 학교·학
부모·학생 삼자가 함께 몸살을 앓고
있는거죠. 학생들은 비인간화되고 교
사는 교사대로 점수 올리는 기계가
되고, 학부모는 석차를 가지고 안달
하게 되는 거죠.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학부형은 서서히 압
력을 받게 됩니다.

고 1부터 입시를 목표로한 교육을 지
향하고 있고 또 내신이 포함되니까,
인간교육에는 미치지 못하는 교육이
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정도는 더 심각해집니다. 고 3이 되
면 속칭 ‘고3 병’이 걸리게 되고 부
모와 자녀 사이에도 더 이상 인간성은
없어지고 자녀는 공부하는 기계, 부
모는 점수 요구하는 존재가 되어 버
리니 가정생활의 리듬은 깨져버리고
수험생의 입시준비에 가족의 모든 생
활을 맞추게 되는 거죠. 입시압박이수
험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식
구가 다 압박과 초긴장의 상태로 돌
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 단
절되고 유일하게 하는 말이란 ‘공부
더 해라’ ‘시험 잘 쳤니?’가 고작입
니다. 길면 3년 짧아도 1년인데 그
동안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려면 몇



이현숙

내신성적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대안의 경우는 모든 가치 척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신성적 평가 기준도 아이큐나 OX 시험결과가 아니라 전인적인 평가여야 한다는 거죠. 어떤 선행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극복했는지 하는.

배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또 하나, 고 3 아이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돈 없는 엄마들의 고충이 어떨까 생각하게 되더군요. 용돈 뿐 아니라, 독서실비, 과목마다 수십종씩 권당 2,000 원에서 6,000 원까지 하는 참고서비 등을 어떻게 대야 할지.

사회자 : 입시제도로 인해서 가정생활의 리듬이 다 파괴될 뿐만 아니라 입시준비 지원을 위해 가정경제의 출혈도 크다는 얘기시죠.

이문영 : 현실적으로 입시경쟁을 놓고 볼 때 고등학생에게 제도와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도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우선은 내 아이가 파괴가 안 되고 그 안에서라도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하느니 만큼 카운슬링 기법의 개발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일률적인 지도 방식 아래서도 자기 독자성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아이들이 받는 피해

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오 : 대학의 문이 좁으니까 경쟁은 불가피하고 아무리 이상적인 교육제도라 하더라도 선의의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경쟁해야 하느냐가 문제죠. 또 이런 극심한 경쟁 속에서 교육의 본질적인 이념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경쟁이 제도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율학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버렸다는 거죠. 과거에 정규수업 외의 어떤 수업도 허용되지 않았을 때는 학교에 따라서 그래도 그 학교 설립정신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자율학습, 보충학습이라고 하는 방과 후의 수업이 제도화되고 나니까 그렇잖아도 일류 대학에 입학한 학생수가 교육의 평가 척도가 되어 있는 풍토 속에서 그만 제도 경쟁속으

로 휘말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이 : 가령 이런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요?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비인간적인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신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다면요?

박 : 물론 현행 제도를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교육제도만 따로 떼어내서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에 안가고도 개인의 성취욕을 만족시키며 살수 있는 사회구조가, 보장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이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신성적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박 : 단 한번의 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긍정이 되나 그 내신도 결국 시험으로 결정되는 것인 만큼 시험 위주의, 아이들을 시험보는 기계로 만든다는 근본 문제의 해결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 : 저는 우리나라 대학의 문이 오히려 너무 넓다고 봅니다. 들어가려는 사람에 비해서 대학문이 좁은 것이죠. 전 대학가려는 이가 너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 그렇죠. 대학에 안 가고도 살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 : 자기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학력에 관계없이 발휘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

어야 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전체적인 사회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이 : 현재 대학의 제 학과 커리큘럼을 보면 인간을 키워간다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는 게 아니라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방향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고전 공부나 어학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정치·문화적인 문제로 귀착되는데 정치가 평등사회 지향형이나 권위형이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권위형이라면 일을 통해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높은 걸 통해서 가치를 부여받으려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의미있게 봐야 할 것은 근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서 깊은 민간단체인 YMCA의 주선하에 교육민주화에 관한 운동이 최근에 일어나 입시제도의 잘못만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돈 걷는 사람으로 비친 것에 대한 부끄럼도 얘기 했다는 겁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학습내용이 달라지고 교과서도 검인정 교과서였는데 국정교과서로 되고 학생들은 동원의 대상이 되고, 결국 우리 사회전체가 안고 있는 괴로움을 어린 학생들과 뒷바라지하는, 특히 어머니들이 겪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하겠고 이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최소한 정신병에는 걸리지 않도록 전문적인 카운슬링 제도, 교사의 성숙한 지도방침 등이 발전되어야 할 것 같



박영숙

고 3이 되면 속칭 ‘고 3병’이 걸리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인간성은 사라지고 자녀는 공부하는 기계, 부모는 점수 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니, 가정생활의 리듬은 깨져버리고 수험생의 입시준비에 가족의 모든 생활을 맞추게 되죠.

아요.

사회 : 정치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를테면 거시적 안목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현행 제도 안에서 최대한 찾아볼 수 있는 해결점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정신건강관리라는 거죠?

이 : 그렇죠. 학부형과 선생님 과 문제를 직접 고민하는 학생간에 학교마다 심층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자습을 통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보통 아이들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학습태도를 이 부조리 속에서라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교사들이 발견해 내야 될 것 같아요.

오 :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해야 할 학생은 한 학급에 60 여명, 아침 7 시반이면 이미 출근해서 교실에 들어가야 하고 오후 10, 11 시 자율학습(사실은 자유롭게 가도 좋고 있어도 좋은 자율이 아니고 분위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 타율학습이죠), 현실적으로 카운슬링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주어진 일상적인 것을 감당하기도 벅차죠. 학부모들만 이런 지나친 제도적 경쟁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일선 교사들도 이런 분위기가 빨리 정상적으로 되돌아 가기를 원합니다. 과거 일류고등학교가 있던 당시에도 입시 경쟁은 치열했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유형은 아니었죠. 적어도 어느 수준 이하의 아이들은 고등학교가기를 포기한다든지, 해봐도 대학교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아이들까지 제도 속으로 흡수시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령 고등학교 12 학급에 학생 700 명 정도라면 많아야 200 여명 정도만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데 그 200 여명의 대학진학을 위해 그 나머지 학생이 같이 고생을 한다는 얘기죠.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나친 과외 폐습

을 제도로 흡수해서 가난한 아이들도 적게 나고 교육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대학 갈 아이나 안 갈 아이나 본인이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제도 속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행하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카운슬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의 개성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여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 혼자로는 불가능한 일이니 만큼 부모의 책임이 중요하게 됩니다.

박 : 학부모와 담임교사간에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는 풍토가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하나를 인간으로 키우는데 있어서 자주 만나서 아이의 개성을 파악하여 학습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아이가 고1, 고2 때 담임선생님과 의논해서 어떤 때는 집에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도 변화를 원하더군요.

사회 : 그것이 가능하려면 교사에게 여유가 있어야 하겠고 또 학부모의 가치관이랄까, 자식을 이렇게 가르겠다는 교육관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독립적인 자세죠. 사실 집단 속에 소속되지 않으면 탈락된 것 같은 불안감이 학부모에게 있거든요. 내 자식이 자율 학습에 빠져 혼자 공부하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죠.

박 :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의 심리 상태, 상황, 원하는 바를 항상 파악해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 결국 아이의 공부를 단속하고 지도한다는 애긴데 부모가 “공부해라”라는 말을 아주 철저하게 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부모가 내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자식이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박 : 이상론 같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이들로 하여금 본성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기보다는 반발을 일으키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 : 매슬로우의 말대로 인간은 자기 조절·통제·선택권이 있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에 대한 얘기는 1년가야 한 두번이나 할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 엄마는 성질이 급해요. 공부에 대한 자극을 주어서 계속하면 1등 하려니 생각하고 아이 책상 옆에 같이 붙어 앉아 졸면 혼들어 깨우고 그렇게 하다보니 애가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학교에서는 카운셀러였으면서도 그제서야 아이를 카운슬링하기 시작했죠. 아주 심했었습니다. 큰 아이로 인해 심각한 경험을 한 후부터는 애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죠. 둘째 아이는 공부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부모를 만난



오장은

대학의 문이 좁으니까 경쟁은 불가피하고 아무리 이상적인 교육제도라 하더라도 선의의 경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경쟁하느냐가 문제죠. 제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경쟁이 제도화되었다는 겁니다. 자율학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버렸다는 거죠.

게 그렇게도 고마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회: 결국 아이를 신뢰해 주라는, 그 아이에게 자율성이 있음을 믿어 주라는 말씀이죠.

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확일화는 탈피해야 합니다. 옆에서 간섭하고, 통제하고, 보살피 주어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확실적인 제도교육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박: 고3 1년 동안에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도 인간성 발휘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 문젠데요. 강압적인 긴장이 1년 동안 쌓이게 되면 결국 병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고2 아니 그 이전부터 긴장해소의 기술을 습득시켜 주는 것이 아이에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광적으로 음악을 좋아한다든지 악기를 다룬다든지 운동을 하나 배우는 것 등이

죠. 24시간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시간엔 긴장을 풀어 주어야 하는데 풀 수 있는 기술 하나를 습득시켜야만 자기 유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오: 정신건강문제가 얘기됐으니까 말인데요, 3년 전에 제가 카운셀러로 있을 때 한양대학교 정신신경과하고 임상병리팀이 문교부의 위촉을 받아 남·녀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했었는데 남학교로는 저희 학교가 표집학교가 되었었죠. 6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폭넓고 깊은 검사였는데 다면적 인성검사, 한양대 신경정신과에서 만든 SCL(Symptom Check List) 그리고 개인 지능검사자료를 사용했으며 전문의사가 직접 면접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로 약 84%가 주의집중력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80%에 육박하는 정도가 정신이 건강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실에서 느낄 수 있어

요. 50 분간 수업 중 주의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한 반에 5~6 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선생님은 말간히 쳐다보고 있지만 질문을 던지면 깜짝 놀래죠. 행정가나, 학교의 입장에서나 수업시간만 연장하면 그와 비례해서 아이들의 실력이 향상하리라 생각하고 아이들의 심리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60 명을 무선표집하여 정신건강 정밀검사를 한 결과 15 명은 정신신경과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심각한 정신건강문제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식, 긴장해소(relax)를 관리하는 기술—기술이란 표현이 적절할 거예요—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할 때 꼭 라디오를 켜 놓습니다.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없으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책상 앞에 스탠드가 환한데도 백열등까지 환하게 더 켜놓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고독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거죠. 제가 담임한 한 여학생의 경우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공부하는 버릇이 있는데 성적이 조금 떨어지니까 엄마가 라디오를 압수해 버렸다는 겁니다. 어쩔 줄 몰라하며 상담해 왔는데 저는 엄마의 뜻도 수용하는 것이 좋으니 라디오 없이 혼자서 해 보고 정 감당할 수 없거든 그 때 중재역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현상은 아주 흔한데 일종의 공허

를 메꾸기 위해 누군가를 옆에 앉혀 놓는 것이죠. 라디오가 그 누군가에 해당되는 도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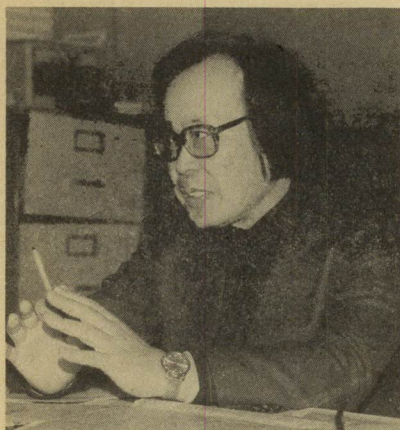
이 : 사실 FM에서 나오는 음악은 오히려 지적 활동을 도와 줄 수 있을 텐데요.

오 : 그런데 전혀 몰이해한 부모들이 있거든요. 과거 라디오 없던 시대의 생각은 안하고 라디오 들으면서 해 본 경험도 없으니 라디오 듣고 있으면 거기에 정신 다 팔고 있겠거니 하는 거죠. 부모들의 교육관이랄까, 의식이 향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 : 지금은 부모가 옛날 자기 경험만 갖고 아이들에게 절대로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 : 아이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참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내 교회 아이들이 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사하고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전 그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고 양심적하게 해달라고 그 결과로 공부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다룬다는 교회가 통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주입하게 될 때 주일날 쉬러 나왔다가 다시 속박을 받고 가게 되죠.

박 :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유일한 자율적인 표현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성 발휘에 애착을 갖고 있는 아이는 고3이 되면 더욱



이문영

교육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에게 맡겨져야 될 것 같아요. 일률적인 단속의 강화가 아닌 자율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대학졸업장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경제구조의 발전에 부응하는 사회발전을 꾀해야 될 것이고 결국 내신성적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교회에 몰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현 교회교육의 패턴이 현행 교육제도와는 별개의 구태의연한 옛날 주일학교식의 방법을 가지고 입시경쟁에 목이 매달려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돌아오면 연극을 한다, 음악을 한다. 문학의 밤을 한다 하여 오랫동안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학교시험때거든요. 공부는 안하고 연극 대본을 학교까지 들고 가서 외운다든지, 교회절기에 맞춰야 된다는 철칙때문인지는 몰라도 신앙의 성장이라든지, 긴장완화, 학교나 가정에서 받지 못하는 교육의 보완에서라면 시기가 맞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맘 놓고 준비할 수 있고 부모도 맘 놓고 참석할 수 있는 때를 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고등부의 교회생활 패턴이 현행 교육제도, 학교생활 등을 검토하여 과학적으로 짜여져야 한다는 점

을 교회에 바라고 싶어요.

사회: 제도에 의해서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는 기능, 그것을 교회가 담당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나가는 얘기로 한 마디 한다면 커리큘럼 중에 점심 바로 다음 한 시간 고고파티를 열면 어떨까요. 교실에서 한 시간 동안 실컷 놀고나서 다시 공부하는 거죠.

오: 무용·체육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그것 역시 점수하고 관계 되니까 점수하고 무관한 레크레이션 시간을 넣자는 거죠.

이: 좋죠. 혼자 댄스든지, 혼자기타를 친다든지, 그런 기법이 중학교 때부터 발전돼야 될 거예요.

사회: 지금까지 구체적인, 특히 어머니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그저 한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부모들 “공부해라”에서 역으로 “애, 좀 쉬어라”라고 하

는 훈련을 해보자는 얘기가 포함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문교행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바로 내년에 시행될 입시제도를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것은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대입제도의 변천사를 보면 해방 이후 9 번씩이나 바꿨던 것이 지나치게 조령 모개식이었다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 시민으로서, 또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될 따끔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죠.

이: 원주 인권위원회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심할 경우는 하루에 한 명 꼴이 입시병으로 인해 자살을 하는데 특히 강원도가 문제랍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성적이 제일 낮다보니 일요일까지도 자율학습을 강행했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목사님들이 항의하고 주일 자율학습폐지를 건의하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들의 참석을 막았으며 참석한 교사들은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원주 인권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교부에 항의를 했었죠. 제 생각에는 결국 교육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에게 맡겨져야 될 것 같아요. 맡겨진다는 것은 교사, 학교에게 교육 자치제가 주어지고, 비록 전적인 권한은 못줄 망정 교사들의 모임같은 것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정권 유지를 위한 교육

은 탈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인 단속의 강화가 아닌 자율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 사회가 대학졸업장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경제구조의 발전을 피해야 될 것이고, 결국 내신성적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제도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사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를 다시 따져야 겠군요.

박: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내신이라는 게 학교별의 평가기준이거든요.

오: 이상으로 봐야죠.

이: 네, 이상이죠.

사회: 그러니까 앞으로 지향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죠.

박: 3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는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대학 가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오: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내신성적만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자는 시안은 내놓질 않았거든요. 다른 문제가 복합적으로 따르니까. 예를 들어 지방학교 등위하고 서울의 등위가 다르고, 서울이라도 강북과 강남의 등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 연세대에서 내신성적만으로 몇 프로를 선발한 적이 있었는데 2~3년 지나자 부작용때문에 결국 없어지고 말았죠.

이: 제 학과 과회장을 했던 졸업생이 있는데 공부부는 中上이었어요. 1

등급이 아니었죠. 그런데 사회 진출을 해서는 그 직장이 믿어주는 든든한 지도자가 되더군요. 그러나 외톨이로 공부만 1 등하는 아이는 대학교수가 되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등급문제가 있겠지만 시골에서 회장을 했든지 연극반 활동을 했든지 그런 자질을 봐서 키워주는게 목적이니까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모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 :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안의 경우는 모든 가치 척도를 바꿔야 되는거죠. 내신성적 평가의 기준도 아이큐나 OX 시험결과가 아니라 전인적인 평가여야 한다는 거죠. 어떤 선행을 했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극복했든지 하는 전인교육적 교육관이 부각돼야 되겠죠. 저는 일제 교육의 영향을 받은 교사들의 세대가 끝나는 때부터 그 가능성이 열린다고 봐요. 지금 우리의 얘기는 하나의 이상이에요. 꿈에는 틀림 없지만 새로운 세대에게 기대할 만한 제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 사실 오산이나 거창 등 몇몇 고등학교의 경우, 어떤 특이하고 자기성실을 모색하는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영감을 불어 넣어 그 안에서 인물들이 길러졌던 말입니다. 결국 사람을 경쟁사회로 내모는 풍토를 수정해야 합니다.

사회 : 우리가 겪는 세계질서 자체가 극단의 경쟁을 기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또 하

나님나라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것을 극복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국제경쟁관계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이 : 상품을 놓고 봐서도 이제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디자인에서부터도 자율적인 독창성을 지녀야 하거든요.

사회 : 자율적인 교육을 해서 창의력과 창작력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욱 필요해 질 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오 : 그런데 현재 대학 구조가 그런 이상을 수용할만한 자율능력이 있습니까? 먼저 그 질문을 하고 싶고, 성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인간됨, 그 사람의 잠재력, 지도력, 개성 등을 봐서 지금은 성적이 나빠도 후에 멋진 인물이 될 수 있으리라 믿고 뽑는다든지...

이 :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제 분야인 행정학에서 보면 세계사속의 놀랄만한 일이 우리 역사에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긍정적으로 보는데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저는 500년을 문치제도로 일관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조선조에서는 고급 공무원, 특히 영의정까지도 시험 봐서 뽑았다는 점에서 당시 세계에 유래없는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문제는 시와 문학이었죠. 행정부의 고급 지도자가 사상전집과 문학전집 가지고 되었던 거죠. 따라서

행정학과와 커리큘럼, 고등학교 교육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기술사회에서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먼저 사람이 된 다음에 그리고 기술이야 한 2년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학과 같은 것도 대학원 과정만 둔다든지 대학 나온 다음에야 목사 공부를 한다든지 미국은 변호사 공부를 대학 나온 다음에야 하지 않습니까? 18살 먹은 아이를 육법전서부터 가르치면 그 애는 돌고말지요.

사회, 대학, 고교 교육의 일관된 맥락에서 인간주의적인 입장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인 개혁, 구조 자체를 일시에 개혁하는 것은 어렵고 이를테면 부분적으로 센타를 두고 실험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자율화가 되면 다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많죠. 지금은 교장이 갖고 있는 교육관을 소신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가지 여건이 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건 자체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입시제 변경도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기엔 너무 다급하고 과거엔 2,3년 후에 시행한다는 유보기간을 두어 준비할 수 있도록은 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런 개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잘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선학교의 분위기가 급방 달라

지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에 영향을 미칠것이나? 앞으로 어느만큼 개선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데 생각을 기우려야 하지 않을까요?

박: 교육의 민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교육·시험제도가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교육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따로 떼어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말입니다. 또하나 문제는 코 앞에 닥치면 우선 내 아이는 이 경쟁을 뚫지 못할까 급급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면 절실하게 생각하지도 않죠. 멀리 내다보고 좋은 방향으로의 개혁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겁니다.

이: 대학원 교육에서도 입시제도의 병폐가 드러납니다. 대학원생 12명을 놓고도 시험 감독한다는 어느 교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가 서 있는데도 책을 퍼놓고 몰래 보더라도 겁니다. 다 보더라도. 경쟁을 시킨다는게 그렇게 비인간화시키고 만거죠. 권닝이 나쁘다고 생각지도 않는답니다. 경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 전인교육의 이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만 되는 게 당면과제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정직한 아이가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사회: 오랜 시간 이상론과 더불어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좌담을 마칠 것입니다.